

반년간의 일본 유학 생활

계명대학교

서수지

한국 계명대학교에서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으로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교환학생 생활을 한 서수지입니다. 벌써 일 년의 반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아쉽지만, 반년간의 일본 유학 생활은 새로움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본어 전공이 아니고, 독학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관련 수업을 듣고, 일본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활하는 것도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한국에서 겪을 수 없는 경험들을 하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유학생 수업 위주로 들었습니다. 유학생 수업은 발표가 많지만,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유학생분들과 이야기 하며 다양한 관 d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수업은 '일본 사정 연습4A' 입니다. 일본인 학생과 함께 수강하는 수업으로, '다문화 교류론' 이라는 명으로 장애인, 젠더, 외국인, 사회 부락민 등과의 공생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그룹이 되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이 없었고, 내용 또한 사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이므로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 느꼈고, 저의 좁던 시야를 넓게 만들어 준 수업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학교 국제 교류센터에서 열린 유카타 교실에 참가해 일본의 전통의상을 입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디즈니도 가보았습니다. 꿈만 같던 공간이었습니다. 좋아하던 아이돌 콘서트에 가보기도 하고, 여행을 갔다가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거주하던 도쿄 외에도 야마나시 현에 가서 후지산을 보기도 하고, 나고야, 오키나와에도 갔다 왔습니다. 오키나와는 엄청 더웠지만, 꿈에 그리던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았습니다.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은 도쿄 중심에 있어, 이케부쿠로와 시부야, 신주쿠 등 번화가에 접근하기 쉬워 도쿄 도내 다양한 곳에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 학

생과 하는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도 참가해 서로의 모국어를 함께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외국에서 지낸 반년이었습니다. 꿈꿔왔던 교환학생을 평생 잊지 못할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학 생활을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 교수님이신 모리야마 선생님, 교환학생 홈룸을 담당하신 하기와라 선생님, 국제과 담당자님, 기숙사 관리 담당자님, 마지막으로 유학생 수업을 담당하신 모든 선생님, 감사합니다.

